

카프로, 2002년 빛 600% 늘었다!

증권거래소, KCC도 10% 증가 ... 전체 상장기업 차입금 10.7% 감소

상장기업들이 2002년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두면서 빛이 크게 줄어들었다.

증권거래소가 12월 상장법인 451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장기업들의 차입금은 2002년 말 기준 126조 1018억원으로 2001년 말 대비 10.73%(15조1586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금융기관 단기성 차입금은 2001년 57조1644억원에서 2002년 51조6230억원으로 9.69% 줄었으며, 1년 이후에 상환하는 장기성 차입금은 84조960억원에서 74조4788억원으로 11.44% 감소했다.

총 차입금에서 단기성 차입금의 비중은 40.94%로 0.47%p 증가한 반면, 장기성 차입금의 비중은 59.06%로 0.47%p 높아졌다.

또 차입금이 없는 무차입회사는 환인제약, 극동전선, 디씨엠, 모나리자, 신세계건설 등 30개로 2001년보다 3개가 증가했다. 일성신약, 태평양, 한국셀석유 등은 2001년에 이어 2002년에도 차입금이 없었다.

총 차입금은 한국전력이 12조44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KT(9조1082억원), 한국가스공사(5조6819억원), SK(5조2686억원), 대한항공(5조205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차입금 증가액은 KT가 3조359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SK텔레콤(1조2158억원), KT&G(7963억원), 데이콤(4539억원), 한진해운(1921억원) 등의 순이었다.

카프로는 총 차입금 규모가 2001년 129억원에서 2002년 901억으로 596.80%(772억원) 늘었고, KCC도 4362억원에서 4806억원으로 10.19%(444억원) 증가했다.

차입금 증가액 상위기업

(단위: 100만원, %)

구분	2001	2002	증감액	증감률	구분	2001	2002	증감액	증감률
케이티	5,748,804	9,108,281	3,359,477	58.44	카프로	12,944	90,194	77,250	596.80
SK텔레콤	3,238,818	4,454,667	1,215,849	37.54	고려아연	221,357	271,534	50,178	22.67
KT&G	313,569	1,109,875	796,306	253.95	태림포장	34,942	82,378	47,436	135.76
데이콤	1,222,855	1,676,794	453,939	37.12	대구도시가스	127,064	173,720	46,657	36.72
한진해운	2,420,065	2,612,209	192,144	7.94	LG전선	482,181	526,719	44,538	9.24
삼성물산	1,651,751	1,837,981	186,230	11.27	금강고려화학	436,208	480,663	44,455	10.19
신세계	897,470	1,079,059	181,589	20.23	세아제강	106,345	147,643	41,299	38.83
한진중공업	1,003,043	1,094,373	91,330	9.11					

자료) 증권거래소

반면, 차입금 감소액은 현대자동차(1조6627억원), 하이닉스(1조5682억원), SK(1조1626억원), 삼성전자(1조782억원), POSCO(9594억원) 등의 순으로 컸다.

S-Oil은 총 차입금 2조487억원으로 19.55% 줄어들었고, 금호산업과 새한도 각각 1조3785억원(-25.61%), 6715억원(-37.91%)으로 감소했다.

한편, 전체 상장기업들의 총 자산 중 차입금의 비중인 차입금 의존도는 2001년 32.22%에서 2002년 28.47%로 3.75%p 떨어졌다. 차입금 의존도는 보통 30% 이하가 적정수준으로 국내 상장 기업들은 미국(2001년 27.4%)보다는 높고 일본(2001년 31.3%)보다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증권거래소는 2002년 상장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졌고 차입금 상환 및 채무개선에 노력한 결과, 기업의 차입금 규모는 축소되고 자산은 증가하면서 차입금 의존도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4/21>